

한국교육행정학회소식지

THE NEWSLETTER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제103호
2010. 4. 30

- 발행처 한국교육행정학회(www.kssea.or.kr) ■ 발행인 송광용 ■ 편집인 정수현, 신철균
- 주소 (137-74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우면로 161 서울교대 인문관 414호
- TEL 02-3475-2522 ■ E-mail kssea1@hanmail.net

교육행정학연구 별책

학회의 활동사항 및 학술대회 개최, 학회관련 업무는 홈페이지 (www.kssea.or.kr)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론 |

제38대 학회 운영 기조

송 광 용(본회 회장,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존경하는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8대 한국교육행정학회장의 명을 받은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송광용입니다. 1967년 학회가 설립된 이래로 전임 학회장님들과 회원님들께서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끌어 오신 덕분에 우리 학회는 교육학 관련 학회 중 가장 역동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학회를 물려받게 되어 영광스러우면서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하나의 학문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독자적인 연구의 대상과 과제, 체계화된 연구 방법론, 전문연구학도들의 집단으로서의 학회와 학회지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국교육행정학회는 교육행정이라는 독자적인 연구대상과 과제를 가지고 다양한 양적,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이론과 실재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회는 회원 수 2,000명이 넘는 대규모 학회로 성장하였고, 학회 학술지인『교육행정학연구』는 국내 그 어느 학회지와 겨루어도 뒤지지 않는 까다로운 심사기준과 절차를 견지함으로써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어 연 4회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교육행정학회는 지난 40여 년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회장으로서는 학회의 지속적 성장과 질적 도약에 이바지하기 위해 그러한 과제들의 일부라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일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의 학문적 추세를 반영한 참신한 연구주제 발굴을 통해 교육과 관련된 학문적 논의에서 한국교육행정학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학회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새로운 주제와 이슈들을 끊임없이 발굴함으로써 한국의 교육행정, 나아가 한국교육을 선도해왔습니다. 그러한 전통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참신한 주제를 중심으로 학술대회나 뉴스레터의 논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교육행정 현장과 학회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론과 실체는 서로를 고양시켜 주는 상호작용을 통해 심화, 발전되어 나아갑니다. 교육행정의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교육행정학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이에 학교현장, 교육행정기관, 교직원단체, 교육관련 연구기관 등과의 연계 및 공동학술대회를 강화하고, 학술대회 주제결정 및 발표자, 토론자 등의 선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의 교원 및 현장 실무자들의 학회 참여를 적극 독려하여,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학회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회원님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학회의 운영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행정학에서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구성원을 적절하게 참여시키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학술대회 주제 선정 및 발표자, 토론자 선정 등에서 회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회의 각 위원회에 가급적 많은 회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생동감 넘치는 학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예비 연구자들이 학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들은 교육행정학회의 미래 주역들입니다. 이들이 학자로서 역량을 바르게 길러야 교육행정학회의 미래도 밝아질 수 있습니다. 각 대학의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들이 함께 모여 발표하고 토론하며, 서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다섯째, 학회 회원들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최근 학문적 기준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 부족과 그에 편승한 언론의 선정적 보도 방식 등으로 인해 회원의 학문적 업적이 훼손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원 개개인의 윤리의식 제고와 학회 차원의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권익이 침해될 경우, 학회가 이에 적극 대응하여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회원 수 확대와 학회 재원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학회의 취지에 공감하고 학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이야말로 학회 존립의 목적이자 기반입니다. 이에 교육행정을 전공하는 대학원

생의 학회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학교의 교원, 현장 실무자 및 기관의 회원 가입을 적극 독려하여 회원 수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비활동 회원에 대한 활동 유도, 기부금 유치, 학회 운영방법 개선 등을 통해 학회 재원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일곱째,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교육정책 결정에 학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학은 이론적 연구의 결과를 현실에 적용하고, 현실 참여의 경험을 이론적 연구에 접목하는 반성적 실천의 학문입니다. 그러한 반성적 실천의 일환으로 논란이 되는 교육정책 및 행정 현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회의 입장을 정리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학회 홈페이지에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 코너, 토론방을 개설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회의 입장을 밝히는 포지션페이퍼나 보도자료, 제안서 등을 발간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격려, 참여 없이는 그 결실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회원님들께서 학회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준용 박사, 박군달 박사, 장훈 박사(왼쪽부터)에게 기념패를 수여하는 송광용 회장〉



I 논단 II

교육행정과 미학

허 병 기(본회 윤리위원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장)

교육행정은 형성의 이미지를 갖는다. 거기에서 뭔가를 형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다. 거기에는 인간의 행위가 있다. 그 행위에 의해 형성하고자 하는 것은 의미를 갖는 어떤 것들이다. 의미를 갖는 것은 숙고의 대상이 되고, 표현의 대상이 되고, 해석과 음미의 대상이 된다.

교육행정을 '과학의 눈'으로 보려는 경향이 한동안 지속되었다. 그런 경향 속에서 우리가 다루려는 대상은 명백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었다.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강령적 주장이 되고, 그것은 결국 객관적으로 인식되고 다루어질 수 없는 것은 유보되고 무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큰 오류였다. 그 오류는 세계에 대한 이해의 제한이고 왜곡이었다. 그러한 소위 실증주의적 인식론이 지배적 인식론으로 군림하던 시대는 갔다고 하지만, 교육행정에 관한 연구와 교육행정 실천의 현장에서 과학과 객관성이 갖는 위세는 아직도 대단히 크다.

교육행정 현상을 바르게, 그리고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접근방법에 있어서 과감한 다양성이 요구된다. 객관성의 눈만으로는 매우 한정적인 부분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교육행정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에는 과학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 학교라는 교육조직을 보자. 거기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이 구상되고, 실행되고, 평가된다. 교육의 그 모든 과정에는 '과학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복잡하고 미묘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Eisner가 수업을 두고 말했듯이¹⁾, 거기에는 해석과 상상력이 요구되는 여백이 있고, 내면으로 음미해야 할 사태들이 있으며,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행동들로 가득하다. 또한, 필자가 말한 바²⁾, 거기에는 창조적 무질서가 있다. 필자의 '창조적 무질서'를 학교에 적용하여 말하면 이렇다.

학교는 무질서하다. 그것은 학교가 하는 일의 성질에 기인한다. 학교는 인간으로 하여금 보다 세련되고 조화롭고 풍부한 지성과 덕성과 정서를 갖게 하고자 하는 곳이다. 더 함축적인 언어로 말한다면,

1) Eisner, Elliot W.(1983). The art and craft of teaching. Educational Leadership 40(4), 4-13.
2) 허병기(1998). 교육의 가치와 실천. 서울: 교육과학사. 1장

사람을 보다 온전한 사람이게 하는 곳이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보다 온전한 사람이게 하는 일은 특별한 접근방식을 요구한다. 간편한 예를 든다면, 학교에서 좋은 사람을 만드는 일은 공장에서 좋은 제품을 만드는 일과 질적으로 다르다. 학교에서 좋은 사람을 만드는 일에는 특이한 난해성과 복잡함이 뒤따른다. 우주만큼이나 불가해한 인간들이 특유의 개성을 드러내고 반응하면서 전개되는 교육의 과정은 실로 그 난해함과 복잡성이 크고 특이하다. 그 난해함과 복잡성은 일반적으로 정형(定型)이나 획일화된 모델의 적용과는 거리가 있는 접근방법을 요구한다. 그래서 학교는 무질서하다. 그러나 학교가 무질서하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표면적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학교는 그 외형적 현상만을 두고 볼 때 분명 무질서하지만, 내적으로는 질서정연하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겉으로는 무질서해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좋은 인간의 형성이라는 창조적 과정과 결과를 지향하여 정연하게 나아간다는 것이다.

교육행정 현상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성질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것을 다루는 방식이 단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설명하는 일이든 혹은 그것을 조형하는 일이든, 거기에 단순히 객관적 이해 방식이나 공학적 처치 방식만이 지배자로 군림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인식하거나 만들어 내고자 하는 세계(교육행정도 그 한 부분)는 궁극적으로 불가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세계에 대한 보다 충실한 이해와 처리를 위해서는 인간이 가진 최대한의 광범위한 능력과 기능이 동원되어야 한다.

교육행정 연구와 실천에 있어 미학적 접근이 갖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술과 미에 관한 지식과 사고가 교육행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방식에 주는 시사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꽤 오래 전부터 리더십 같은 교육행정의 문제를 미학적 시각으로 논의한 적은 있으나 그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일반적인 조직 문제의 차원에서 미학적 접근을 취한 사례는 그보다 많았다. 최근에 출간된 한 저서는 교육행정과 리더십의 다양한 측면들을 미학적 접근으로 다루고 있다.³⁾ 그 책에서는 상상, 표현, 숭고와 같은 개념들을 가지고 교육행정(혹은 교육행정 연구)을 말하고 있으며, 교육 분야 리더십의 이론과 실천에서 미학과 예술이 갖는 위상을 논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합리성에 경도된 관료제적 행정의 폐해에 대한 반동으로서의 미적 경험을 말하고 있기도 하고, 건축가와 같은 리더의 면모를 심미적 리더십으로 명명하고 있기도 하다.

Deal과 Peterson은 학교 리더십, 특히 문화를 다루는 리더십과 관련하여 그 예술적 성격을 비중있게 강조하고 있다.⁴⁾ 학교의 리더십은 과학적, 공학적 접근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으며, 반드시 예술성이 비중있게 반영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예술적 특성을 갖는 리더십이 행사되어야만 학교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신념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래야만 학교는 학생들에게 최선의 학습의 장으로 변모할 수

3) Samier, Eugenie A. & Bates, Richard J.(2006). Aesthetic dimensions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leadership. New York: Routledge.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문화를 만드는 학교장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 중 특히 상징으로서의 역할, 도예가로서의 역할, 시인으로서의 역할, 배우로서의 역할 등은 학교장 리더십이 '예술적인 것(the artistic)'의 특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필자가 학교장의 문화적 리더십이 갖는 예술성을 다룬 바 있다.⁵⁾ 거기에서 필자는 문화를 형성하는 학교장의 리더십에는 예술적 특성이 다분히 담겨 있다고 보고, 이를 설명하고 있다. 문화적 리더십이 성공적으로 행사되는 방식이나 그것이 효과적으로 발휘되는 데 요구되는 조건들 중 예술적 성격과 부합하는 것들을 찾아 거기에 설명을 가하고 있다. 예술과 미의 문제를 다루는 이론, 관점, 원리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어떤 것이 예술성을 가졌다고 말하기 위해서 그것이 지녀야 할 특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적 리더십의 예술성을 말하기 위해 창조적 발상과 구성, 의미의 소통과 감성의 작용, 표현과 상징 운영, 완성의 총체성, 감식안의 요구, 무질서의 수용이라는 여섯 가지 특성 범주를 설정하고 있다. 그 여섯 가지 특성을 통해 학교장의 문화적 리더십이 예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예술적인 것' 혹은 '미적인 것'에서는 직관, 감각, 느낌 따위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그것은 '예술적인 것' 혹은 '미적인 것'에서는 추론적 언어로 전달되거나 논의될 수 없는 영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술적인 것에서는 논증적 의사소통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어떤 것이 표현되고, 명료한 언어로 말할 수 없는 상태로 어떤 것이 경험된다. 거기에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것(내용)과 그것이 표현되는 방식(형식)이 별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 작용한다. 하나의 예술 작품은 그 내용과 형식이 '하나의 표현체'가 되어 덩어리로 나에게 던져져 경험된다. 나는 그렇게 나에게 덩어리로 던져져 오는 것에 대해 반응한다. 나의 그러한 경험과 반응은 실존하는 나의 삶이며, 세계를 이루는 의미있는 부분이 된다.

교육행정 연구와 그 실천은 '예술적인 것' 혹은 '미적인 것'이 갖는 이러한 특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육행정이라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은 항상 추론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논증적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거기에서는 직관, 감각, 느낌 따위로 경험되거나 판단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비언어적 상징이나 여타의 방식으로 표현되고 이에 반응하는 일이 설 새 없이 발생한다. 비논리적 사고와 특별한 주관성에 의해 행위가 결정되고 추동되는 일이 빈번하다. 이런 상황에서 객관성과 논증적 근거에만 의존하여 현상을 이해하고자 할 때, 그것이 갖는 한계는 매우 커진다. 이를 극복하고자 질적 연구방법을 대안으로 내세우기도 하고,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

4) Deal, Terrence E. & Peterson, Kent D.(1994). The leadership paradox: Balancing logic and artistry in schools.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Deal, Terrence E. & Peterson, Kent D.(1999). Shaping school culture: The heart of leadership.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Publishers.

5) 허병기(2008). 교육조직의 문화적 리더십이 갖는 예술성. 교육행정학연구 26(4), 489-507.

하는 접근방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물을 보는 시각과 사물을 다루는 방식을 더욱 과감히 확장하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외의 영역에 유보해 놓고 있는 '논증할 수 없는 것',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직관이나 감성이나 감각에 의존하는 것', '주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 '무질서한 것' 등을 우리의 탐구와 실천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는 필요가 있다. 그러한 것들은 엄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의미있게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조직을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교육행정이라는 세계를 설명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가는 일에서 중시되어야 한다.

미학을 교육행정을 연구하고 교육행정을 실천하는 일에 끌어들이는 것은 그와 관련된 지식과 삶에 흥미를 더하는 일이 되고, 그 품격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다. 미학의 힘을 빌려 교육행정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한층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교육의 세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삶에 부드러운 깊이와 세련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예술과 아름다움을 보는 방식과 그것에 대한 설명은 교육행정을 보는 방식과 그것에 대한 설명에 다른 차원의 진전을 가져다 줄 것이다.





I 논단 II

수석교사제

이 윤 식(본회 학술편찬위원장, 인천대학교 도서관장)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고려해 '여러 줄 세우기'를 해야 하는 것처럼,
'교사들의 학교관리직'을 향한 한 줄 세우기를 바꾸자!

수석교사제는 현재 관리직 지향의 교원자격체제를 개선하여 교단교사를 우대하자는 취지에서 제기된 제도이다. 현재 [2급정교사→1급정교사→교감→교장]으로 이어져 있는 교원자격체제는 교사들로 하여금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직위'로의 자격제도가 아니라, '가르치는 일을 벗어나 관리직'으로 진출을 유도하는 자격제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장·교감으로의 승진을 위한 경쟁이 과열되고, 교장·교감으로 승진하면 유능한 교원이고, 평교사로 있으면 무능한 교원이라는 인식이 퍼져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수석교사제 도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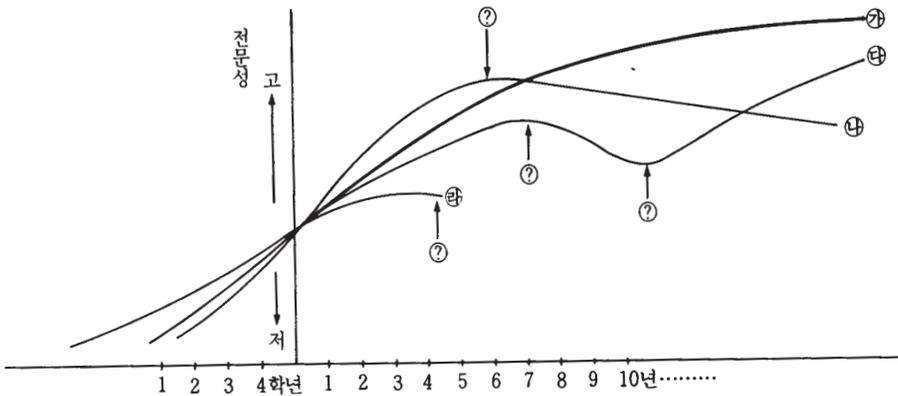
첫째, 교사에서 교감·교장으로 가는 길 외에 다른 길을 열어 놓아, 교사들이 관리직으로 자리를 옮기지 않아도 '가르치는 일' 자체에서 보람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전체적으로 교사들의 사기를 높여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학교교육에서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 및 능력을 고려하여 '여러 줄 세우기'를 해야 하는 것처럼, 교사들에게도 '교감·교장을 향한 한 줄 세우기'는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성실하게 교육활동에 헌신해온 교단 교사들에 대하여 긍지와 의욕을 높이고, 교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지위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타 분야에서는 해당 업무에 관한 경륜과 권위를 인정하여 대법관, 대기자, 수석감리사, 기능장 등의 제도가 있다. 이런 제도는 교직에서도 필요하다. 수석교사제의 도입은 교사들에게 교직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며, 나아가 교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것이다.

셋째, 교사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가르치는 일'에 관한 전문성을 심화·촉진할 수 있도록 교원자격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교직경력 3년 경과시 1급정교사 자격연수를 받은 이후, 20여년 경과 시점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관리직인 교감으로의 승진을 위한 자격연수 기회가 있다. 그러나 '가르치는 일'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자격연수 기회는 없다.

교사들은 교직생활 전체기간을 통하여 교직생활과 관련된 제반 영역에서의 가치관, 신념, 태도, 지식, 기능, 행동에 있어 양적·질적 변화를 보인다. 대체로 교직경력 5년 정도 지나면 교직에 적응하게 되고, 10년 정도 지나면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보직교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림]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의 교사발달 유형을 보면, 개인차가 있겠지만, 교직경력 5년까지는 전문성 신장 변화가 급격하고, 그후 10년까지는 초기에 비해 다소 완만해지고, 10년이후에는 안정적인 경향을 보인다. 교사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교직 전문성을 심화·촉진시킬 수 있는 교원자격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림] 교사발달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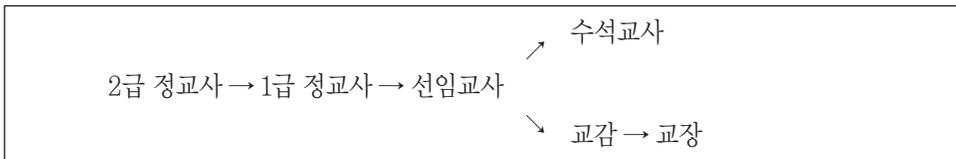
출처: 이윤식(1999). 장학론: 유치원·초등·중등 자율장학론. 교육과학사, 46면.

넷째, 학교경영체제를 관리·발전시키는 '관리직(management)'과 전문적 교수학습활동을 유지·발전시키는 '교수직(instruction)' 간에 상호보완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학교 교육력을 높여야 한다. 민주화, 자율화, 다양화 추세에 따라, '지도성 독점'의 시대는 지나가고, '지도성 공유(shared-leadership)', '팀 지도성(team-leadership)'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이에 부응하는 교원자격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면 "학교장의 지도력이 약화된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걱정하기도 한다. 학교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가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교장이 학교의 경영 측면과 교수학습 측면 모두에서 완벽한 지도성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 교장의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학교교육을 위하여 힘을 보탬 수 있는 조력자가 생기는 것으로 보고

지혜롭고 포용력있는 지도성 발휘를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현행 [2급정교사→1급정교사→교감→교장]의 교원자격체계를 [2급정교사→1급정교사
선임교사→수석교사]의 교수기능 자격체계와 [2급정교사→1급정교사→선임교사→교감→교장]의 관리
기능 자격체계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도입하여야한다. [2급정교사→1급정교사→선임교사]까지는 교수
기능 자격체계나 관리기능 자격체계가 공통적으로 거치되 선임교사에서 이원화하는 방안이다.



선임교사제는 교사경력발달 단계에 따른 교직 전문성 심화·촉진을 위해서 뿐 아니라, 수석교사 선
발을 위한 인력 pool 마련을 위한 합리적 장치의 기능을 한다. 구체적으로 선임교사제의 필요성은 다
음과 같다.

① 1급정교사 자격연수(교직경력 3년이상)후, 교감 자격연수(대략 교직경력 20년 이상) 이전에 교사
경력발달을 위한 체계적인 자격연수 필요(1급정교사 자격연수후 5년 정도후), ② 보직교사로서 1,2급
정교사들을 대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준비로서 체계적인 연수 필요, ③ 자신의 적성이 교수
(instruction) 혹은 관리(management) 어느 분야에 적합한지 탐색해보는 단계의 설정 필요

④ 수석교사 선발이 과열되지 않고, 적절한 선별과정을 거친 인력 pool 마련을 위한 단계의 설정 필
요 등이다. 선임교사는 교수·학습활동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하는 학교현장에서 보직
교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수석교사는 단위학교와 교육청 수준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교수·학습활동 및 연구활동을 지도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구체적으로 수석교사는 학생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① 수업공개 및 수업장학의
실제 수행, ② 초임교사 대상 교수·학습활동 멘토링, ③ 교수·학습활동 컨설팅, ④ 교원능력개발평
가의 학습지도 영역 평가 참여, ⑤ 교과 평가문항 연구·개발·지원, ⑥ 교수·학습활동 관련 기술·
방법·자료의 연구·개발·지원, ⑦ 교수·학습활동 관련 연구 및 연수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연구부장은 주로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교육계획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될 것이
다. 교감은 교장 직무대행 및 교무행정 등을 담당하고, 수석교사는 교수·학습활동 및 연구활동 지원
과 학생교육을 담당하도록 역할분담을 하면 될 것이다.



| 논단 III |

국가 교육의 품격과 전략적 교육행정

박 영 숙(본회 정책연구위원장,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컨설팅·평가연구본부장)

1. 국격 제고를 위해 교육시스템의 격을 높여야 하는 한 해

'G20 정상회의' 개최가 확정된 이후, 국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국정 전반에서 품격 높이기 위한 방법론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능률협회(KMAC)는 국가 경쟁력은 품격에 달려다고 강조하고, 금년도 연중 기획으로 '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과제를 월별로 다루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교육의 격'을 다루면서 품격 높은 교육을 위한 5대 아젠다를 제시한 바 있다. 품격 높은 교육을 위한 5대 아젠다로는 ① 전인교육이 기본, ② 비전을 발견하고, 꿈꾸게 만드는 교육, ③ 창의성, 다양성에 기반한 교육 스펙트럼 확대, ④ 글로벌 관점에서 미래 가능성 말하기, ⑤ 개인, 조직, 사회와 소통 배우는 교육문화가 제시되었다(KMAC, Asia's No.1 Knowledge Provider, 2010.3.19).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성은 기본이요, 비전을 발견하고 꿈꾸게 만드는 교육을 위해 창의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교육을 지원하고 글로벌 관점에서 상호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게 촉진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 4월에는 '격조 높은 사회 시스템 만들기'가 제안되었다. 아무리 품격이 높은 요소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그릇에 담지 못하면 품격은 완성되지 못한다고 보고, 국가의 품격을 담는 시스템에 담아야 할 5대 핵심 시스템이 될만한 이슈로 ① 정의와 평등이 반영된 정치 시스템, ② 국가의 브레이크이자 엔진 역할을 하는 법 시스템, ③ 질 높은 교육시스템, ④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실현되는 복지시스템, ⑤ 품격 높은 기업 환경을 형성하는 경제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질 높은 교육시스템이 이슈가 되고 있음에 주목할만하다.

교육 시스템의 혁신에 대하여는 단편적 지식 전수의 교육(teaching)에서 21세기 삶을 준비하는 학습(learning)으로 변화해야 하고, 취약 계층 아이들도 희망을 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혁신될 것이 강조되고 있다. 품격 높은 교육시스템을 위한 논의에서는 개인의 인간적인 발달과 공동체의 통합적인 발전을 위해서 학교교육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국가 지도자들은 어떤 교육철학과 관점으로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공교육을 제공해야 하는지, 교육정책은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어떤 과정을 거쳐

입안되고 시행되어야 하는지, 학교와 교사들은 어떤 교육철학과 원칙을 갖고 교육에 임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숙고하고, 학생들에게 차별 없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관점과 철학으로 지원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KMAC, Asia's No.1 Knowledge Provider, 2010.4.23).

2010년에는 교육의 격이 국격을 높이는 중요한 화두어가 되었다. 최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직접 교육을 챙기는 것을 시작으로 교육시스템의 혁신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이 즈음에 교육행정학회는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우선 국정 현안인 '사교육경감 지원'과 '공교육 활성화', '창의적 인재 육성', '고교 교육력 제고' 등의 교육정책을 지원해야 할 것이고, 글로벌 관점에서 미래 가능성을 논의하고, 미래 꿈을 실현하는 격조 높은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교육시스템의 격을 높이기 위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관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교육 시스템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융합적 체계 구축 필요

시스템의 사전적 용어는 '어떤 목적을 위한 질서 있는 방법, 체계, 조직'으로 제시되거나,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관련 요소를 일정한 법칙에 따라 조합한 집합체'로 제시되기도 한다. 질서있는 체계와 일정한 법칙으로 조합된 집합체와 같은 속성이 있다. 시스템의 격을 논의하게 되면, '통합', '융합', '배려', '수용'이란 키워드가 등장한다. 시스템의 격 높이기에서 융합이 키워드가 되는 것은 시스템의 속성인 관련된 요소간의 질서 있는 조직과 일정한 체계 확립에 필요한 요건이기 때문이다. 시스템의 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개선 요구에 부응하여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질서 있는 합리적인 체계가 확립될 수 있다. 시스템의 격 높이기에도 필요한 또 하나의 요건이 있다면 그것은 실천하는 사람이 시스템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고 지향성을 토대로 시스템을 잘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시스템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별로 단절적으로 수행하던 기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융합하여 지원하는 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육시스템의 의미를 교육과 시스템으로 구분해 볼 때, 교육은 학생이 미래를 준비하는 학습 콘텐츠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고, 시스템은 학생의 학습과정을 지원하는 교사와 시설환경, 제도 등으로 구성되는 지원인프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시스템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 하드웨어의 결합이 기본이 되는 것이고, 교육시스템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다양한 인프라를 상보적으로 결합시켜 질서 있는 조직과 체계로 확립시킴이 마땅하다.

그동안 교육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면서 교육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학교 다양화 정책과 교과교실제 정책, 그리고 고교 교육력 제고 정책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교과교실제는 교육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격 높은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격 높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기에는 시스템의 구성 요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

교과교실제는 기존의 학급 중심에서 교과중심으로 학교 운영체제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교과전용 교실을 갖추고 수업 시간표에 맞춰 학생이 교실로 이동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시킨 사례에 해당한다. 교과교실제가 학생의 발달을 중심으로 성과 높게 운영하는데 필요했던 요건은 교육과정(소프트웨어)과 교육시설(하드웨어), 교원(휴먼웨어)을 하나의 시스템에 담아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교육시설로서의 전용교실을 갖추었으나 교육과정과 교원 측면에서 필요한 요건이 지원되지 못한 한계를 나타냈다.

교과교실제가 시범 운영되면서 교육과정과 교육시설, 교원 각 분야에서 활동하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교과 교실을 계획하고, 학생 지도 방법과 행정 지원 방식 등이 논의되면서 학생 발달 중심의 질 높은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교육시설, 교원, 행정 조직이 함께 융합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제기되었다. 교육과정 분야에서는 수준별 교재 개발과 평가 방법 개선이 요구되었고, 수준별 수업을 담당할 전문성 높은 교사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강사 확보에 관한 요구에 무척 높았다.

그러나 교원 확보에 관하여는 교원 정원 담당 부서와의 연계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수준별 교재 개발과 평가 방법 개선 요구 역시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교과교실제라는 새로운 시스템은 교육과정과 시설, 교원 등의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 요소들이 융합적으로 지원되지 못함으로써 '격 높은 시스템'이 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

3. 교육의 격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교육행정의 전략적 기능 중요

교육시스템은 교육 운영에 필요한 기본 요소들의 합리적인 조합으로 일정한 규칙과 체계적인 질서로 운영되는 특성을 갖는다. 교육시스템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기본 요소들이 제대로 조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운영을 위한 질서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밑그림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설계 절차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의 국제경쟁력 관점에서 기본 요소가 부족하거나 결핍되지 않은지 비교 진단하고, 학교급별 필요와 요구를 수용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나아가 국가 교육정책의 중점 방향을 조정하거나 전환하게 되는 경우, 기본 요소의 가중치를 가감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결과와 부작용을 예측하고 보완 장치를 준비하는 전략적 예방 절차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의 전략적 기능이 더욱 중요해진다. 즉, 교육행정에서는 교육의 구성 요소들간의 상호 영향 관계를 고려하여 교육 운영 관계를 진단하고, 운영체계가 자율성, 합리성, 효율성, 민주성, 형평성의 원리를 토대로 확립될 수 있도록 운영 질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줄 주어야 한다. 특정시기의 현안에 대하여는 전략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지향성과 방향성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교육행정에서는 교육의 격을 높이는 데 교육기획-조직-예산배정-인사-실행-조정-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전략적으로 기능할 것이 기대된다.

공교육에 대하여도 전략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즉,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까지 확립된 공교육 시스템에 필요한 기본 요소가 결핍되어 있지 않은지 기본 요소를 살펴 적절한 수준으로 충족되어 있는지를 우선 진단하고, 그러한 요소들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질서로 배분되고 운영되는지의 관계를 교육의 균형발전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진단하며, 상호 네트워크로 연계·운영되는 교육조직이 자율과 협력을 바탕으로 활력 있게 운영되는지 조직 구성원의 의식과 협력을 증진시키는 문화 조성을 지원할 것이 기대된다.

4. 격 높은 선진 교육시스템, 미국「미래학교」적용 기대

앞서 기술한 한국능력협회에서 품격 높은 교육을 위해 제안한 5대 아젠다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글로벌 관점에서 미래 가능성 말하기와 개인, 조직, 사회와 소통 배우는 교육문화 조성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글로벌 관점으로 미래 교육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교육청과 협력하여 새로운 학습 모델의 학교를 건립하고 학교경영을 지원한 미국 필라델피아의 '미래학교(School of the Future)' 모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높다.

미래학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필라델피아 교육청이 협력하여 공교육을 되살린 사례로 유명하다. 미래학교는 4년제 고등학교로 설립되었고 금년도에 최초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2003년 당시 미래학교에서 21세기 학습 공동체를 위한 모델을 구안하면서 학교 건물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디지털 세계 및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게 준비시킬 수 있도록 테크놀로지 활용과 프로젝트 학습 방법 등의 혁신적 환경이 적용되었다.

미래학교의 21세기 학습 공동체를 위한 교육 모델을 구성하는 혁신 요소로는 ① 교육환경의 모든 영역에 테크놀로지 접목, ② 언제, 어디서에서든 지속적인 학습 접근 가능, ③ 관련성 있는 도구, 기술, 내용 및 학습 환경 제공, ④ 학습 개인의 요구 및 변화하는 공동체의 요구에의 부응, ⑤ 학습자를 실제 상황 및 공동체 중심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비판적 의식, 창의성 및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 개발이 설정되었다.

미래 학교에서 다루는 교육과정은 교육내용을 넘어 학교의 모든 것(학교 조직, 일과 및 건물 자체)으로 확대되며, 학습자들이 핵심 기술만을 습득하고 숙련하는 것 이상을 배우게 되는, 프로젝트 중심 학습모델로 확장된다. 각 프로젝트는 많은 학습 분과를 통합하도록 기획되어질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살고 있는 실제 세계의 복잡한 방식을 학습하도록 기획되어진다.

미래학교 관련 동영상을 보면, 학생이나 교사 모두 학교에 머무는 것이 즐겁고, 상호 교류하며 활력이 넘친다. 교육공간은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의미 있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감성 높은 환경으로 디자인되어 있다. 도서관에는 책이 없고 전자도서를 활용하며, 교실마다 ICT 활용 시스템이 갖추어 있어 교육활동이 편리하게 이루어지며, 교육활동에 필요한 도구와 지원 환경이 적절하게 갖추어져 있다. 그

야말로 기본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어 학생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만족도가 높다. 변화해 나가는 세상의 삶에도 적응할 있게 프로젝트를 수행하므로 탐구 의욕도 높아 학교에 머물고 싶어 한다.

결론적으로 품격 높은 교육시스템은 교육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인적 및 물적 인프라의 기본 요소들이 적정 수준으로 갖추어져야 있어야 하는 가능하다. 시스템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간 차이 없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행정 질서와 체계가 확립되어야 하고 제도권으로 보장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교육시스템의 기본 요소가 충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확립하고 시스템의 격을 디자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몫이다.

교육시스템의 격을 높이는 절차의 하나로 학교 건축 과정에 교육명세서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교육명세서는 학교를 증개축하거나 신설할 때 학교운영 관련자(교사, 교직원, 학부모, 학생, 건축가, 교육청 관계자, 시설 관리자 등)가 모두 참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구를 비롯한 다양한 인프라 조건을 기술해 놓은 교육 내역서이다. 교육명세서는 교육에 관여하는 자들이 협력적으로 작성하는 특징이 있다. 무엇보다 학교구성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교육공간을 학습자 중심으로 배려있게 디자인하는 기능이 수행된다. 교육명세서를 작성하게 되면, 학교 운영에 어느 정도의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며 필요한 교구와 교재 종류는 무엇이고 어떻게 지원되어야 하는가에 관해 고민하게 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될 것이므로 공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고 교육의 품격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향후 교과교실제를 비롯한 학교 개선 절차에 교육명세서가 보편적으로 적용될 것을 기대해본다.



※ 본지에 게재된 논단의 내용은 한국교육행정학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학회 활동 안내

1. 제38대 학회 조직 구성

가. 회장단

회 장 : 송광용(서울교대)
 부 회 장 : 임연기(공주대)
 감 사 : 이광현(부산교대), 박소영(숙명여대)

나. 이사회

〈당연직 위원 31명〉
 김영식, 이 중, 신극범, 윤형원, 김운태, 김재범, 신철순, 정태범, 김명한, 남정걸, 이형형,
 강영삼, 윤정일, 신중식, 광영우, 최희선, 한경수, 김신복, 주삼환, 이종재, 서정화, 노중희,
 강무섭, 강인수, 정진환, 박종렬, 정영수, 김명수, 신재철, 송광용, 임연기

〈선임직 위원 38명〉 - 가나다순

고 전(제주대), 공은배(KEDI), 김남순(조선대), 김병주(영남대), 김성렬(서원대), 김성열(평가원),
 김영철(한국교육정책연구원), 김이경(중앙대), 김재웅(서강대), 김태완(KEDI), 김혜숙(연세대),
 김홍주(KEDI), 박남기(광주교대), 박선형(동국대), 박세훈(전북대), 박영숙(KEDI), 박재윤(KEDI),
 반상진(전북대), 송기창(숙명여대), 신상명(경북대), 신현석(고려대), 엄상현(교과부), 염민호(전남대),
 유현숙(KEDI), 이윤식(인천대), 이일용(중앙대), 임용순(강원대), 임천순(세종대), 전제상(경주대),
 정일환(대구가톨릭대), 조동섭(경인교대), 주철안(부산대), 진동섭(청와대), 천세영(KERIS),
 최준렬(공주대), 최충욱(경기대), 한유경(이화여대), 허병기(교원대) (이상 가나다순)

다. 분과위원회 구성

분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획위원회 (9명)	신현석 (고려대)	박상완 (부산교대)	김동석(한남대), 김순남(KEDI), 이병식(연세대), 이석열(남서울대), 조영해(경희대), 채재은(경원대), 한신일(성균관대)
학술위원회 (10명)	김혜숙 (연세대)	김재웅 (서강대)	구희원(그리스도신학대), 김광호(교과부), 김희규(신라대), 박엘리사(송실대), 박종필(전주교대), 손경애(서원대), 장덕호(상명대), 하봉운(경기대)
편집위원회 (11명)	송기창 (숙명여대)	반상진 (전북대)	손희권(명지대), 윤홍주(춘천교대), 홍창남(부산대), 양성관(건국대), 유길한(진주교대), 박수정(안양대), 이광현(부산교대), 이제봉(울산대), 송경오(조선대)

분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국제학술 위원회(7명)	박남기 (광주교대)	박선형 (동국대)	고전(제주대), 박삼철(단국대), 박인심(서울여대), 신정철(서울대), 황준성(KEDI)
홍보·규정 위원회(6명)	김남순 (조선대)	김승오 (전남교육청)	이차영(한서대), 홍성훈(건양대), 성병창(부산교대), 주현준(중부대)
재정·기금 위원회(9명)	천세영 (KERIS)	박동선 (서울산업대)	남수경(강원대), 오세희(인제대), 이선호(KEDI), 김수구(KERIS), 우명숙(교원대), 이유경(전북교육청), 신봉섭(나사렛대)
학술편찬 위원회(11명)	이윤식 (인천대)	박재윤 (KEDI)	김명수(교원대), 김영철(한국교육정책연구원), 노종희(한양대), 박종렬(경북대), 서정화(홍익대), 이일용(중앙대), 임천순(세종대), 정영수(충북대), 정일환(대구가톨릭대)
윤리위원회 (9명)	허병기 (교원대)	조석훈 (청주교대)	김인희(한국교원대), 강경석(인하대), 김이경(중앙대), 염민호(전남대), 이태상(상지대), 박소영(숙명여대), 김갑성(KEDI)
정책연구 위원회 (9명)	박영숙 (KEDI)	전제상 (경주대)	김수영(강릉영동대학), 박보배(국제교육진흥원), 박승희(이화여대), 이인희(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이장익(아주대), 유웅상(KEDI), 우영옥(경기 오남중 교장)
부회장선출 위원회(9명)	유현숙 (KEDI)	최준렬 (공주대)	김민희(대구대), 박호근(한국체대), 신상명(경북대), 박세훈(전북대), 김현진(국민대), 김용(청주교대), 이정미(KEDI)
소석논문상 위원회(9명)	정태범 (전 교원대)	강영삼 (국민대)	강무섭(강남대), 노종희(한양대), 강인수(수원대), 신중식(전 국민대), 이종재(전 서울대), 주삼환(전 충남대), 조동섭(경인교대, 2008년도 편집위원장)

라. 사무국

- 사무국장 : 정수현(서울교대)
총무간사 : 신철균(서울대)
편집간사 : 김효진(숙명여대)

2. 학술대회

❖ 제156차 학술대회

- 일 시 : 2010년 4월 24일(토) 09:00-18:00
- 장 소 : 한국교원대학교(한국교육학회 춘계 학술대회와 연계)
- 주 제 : 자유주제(학위 논문 및 학술 논문 발표)

❖ 제157차 학술대회

- 일 시 : 2010년 6월 12일(토) 13:30-18:00
- 장 소 : 연세대학교(서울) 용재관
- 주 제 : 미래지향적 학교발전모형 탐색

❖ 제158차 학술대회

- 일 시 : 2010년 10월 30일(토)
- 장 소 : 건국대학교(서울)(한국교육학회 추계 학술대회와 연계)
- 주 제 : 자유주제(학위 논문 및 학술 논문 발표)

❖ 제38차 연차대회 및 159차 학술대회

- 일 시 : 2009년 12월 12일(토)
- 장 소 : 서울교육대학교
- 주 제 : 미래사회의 변화와 교육기획



3. 현장교원 학술집담회

❖ 제 1차 현장교원을 위한 학술집담회

- 일 시 : 2010년 7월 17일(토)
- 장 소 : 서울교육대학교
- 내 용 : 현장교원(전문직 포함)이 보는 한국교육행정(학)의 현주소 및 과제 관련 발제문 발표와 대화

4. 대학원생 학술집담회

❖ 제 4차 대학원생을 위한 학술집담회

- 일 시 : 2010년 8월 20일(금)
- 장 소 : 서울교육대학교
- 내 용 : 대학원생 학술논문발표

회의 개최 현황

❖ 제1차 이사회 개최

- 일 시 : 2010년 2월 25일(목) 낮 12:00
- 장 소 : 남촌
- 안 건 : 2010년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 심의

❖ 제1차 학술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0년 3월 6일(토) 10:00

- 장 소 : 서울교육대학교
- 안 건 : 2010년 학술활동 계획 수립

❖ 제1차 임시총회 개최

- 일 시 : 2010년 4월24일(토) 17:00
- 장 소 : 한국교원대학교
- 안 건 : 회칙 개정

학술지 논문게재 안내

● 원고접수 : 수시 접수체제로 운영(홈페이지 접수)

권 · 호		심사접수 마감일	발간예정일
28권 (2010년)	1호	2월 29일	4월 30일
	2호	5월 31일	7월 31일
	3호	8월 31일	10월 31일
	4호	10월 31일	12월 31일

- 원고분량 : ① A4용지 20페이지 (참고문헌, 영문초록 포함)
 ② 이를 기준으로 5페이지를 초과 할 수 없으며, 20페이지에서 1페이지 초과시마다 3만원을 추가
 ③ 규정개정으로 인하여 최대 25페이지를 초과하는 논문은 접수하지 않음

- 심사료 : 90,000원(심사위원 3인×3만원)

● 게재료

- ① 입금시기 : 심사결과 '게재가'로 결정된 후에 입금
- ② 게재료 : 연구비 수혜를 받아서 작성된 논문은 400,000원 이상
 연구비 수혜 없이 작성된 논문은 100,000원 이상
- ③ 입금계좌 : 079801-04-057012(국민은행), 예금주 : 송광용(논문)

- 원고 작성 시 홈페이지에서 작성양식(홈페이지 논문접수 접수안내 양식다운받기)을 다운 받은 후, 원고 작성 세칙 준수 요망(학회 홈페이지 참조)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현황

● 신규회원(2010. 1. 1 - 2010. 4. 30)

- 개인회원 : 강희경, 구신자, 권정현, 김갑석, 김대훈, 김성호, 김세정, 김영진, 김용남, 김준호, 김지훈, 김진미, 김홍주, 노현서, 박세정, 박지훈, 백난영, 신봉섭, 심형보, 유경훈, 이동선, 이재혁, 이필남, 이해경, 장재경, 장 훈, 전경애, 조영재, 조은경, 최승천, 최재진, 한재민(이상 32명)
- 기관회원 : 경기외고, 한국국방연구원, 한신대학교(이상 3개 기관)

◎ 연회비 납입현황(2010. 1. 1 - 2010. 4. 30)

- 개인회원 : 강석봉, 강영택, 강인수, 고 전, 광상기, 김덕근, 김명수, 김민희, 김성규, 김성기, 김세호, 김수연, 김수영, 김승훈, 김옥예, 김용주, 김인희, 김재웅, 김종기, 김현진, 노기주, 류윤석, 박경호, 박상완, 백승관, 설인환, 손권목, 송광용, 신재흡, 심용섭, 안길훈, 안현중, 염민호, 오대수, 오현석, 오병호, 원유옥, 유길한, 유영설, 이광현, 이낙중, 이상규, 이상민, 이승일, 이일용, 이종각, 이지영, 이태상, 장한기, 전용환, 정봉근, 정성수, 정연한, 정희욱, 조규진, 조석훈, 조선일, 조성익, 조영하, 조평호, 조항로, 최성보, 최수민, 최준렬, 추미애, 한유경, 허병기, 홍상현, 홍성길, 홍창남, 황윤한 (이상 71명)
- 기관회원 : 가톨릭대, 경인교대, 교육과학연구, 남서울대, 전주교대, 충남대, 한국교총(이상 7개 기관)

※ 정보가 잘못 표기되거나 누락된 경우 사무국(총무간사)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연회비 납부 관련 문의는 사무국(총무간사)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동정

❖ 축하드립니다.

이윤식: 인천대학교 도서관장 임명

김민희: 대구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

이희숙: 경남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

조석훈: 경원대학교 부교수로 임용

주현준: 대구교육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

주삼환, 조성만, 김병윤, 김수아, 류지은 역(2010). "교육행정윤리". Ronald W. Rebores(2001). The Ethics of Educational Leadership. 서울: 시그마프레스.

정성수, 홍창남, 박상완, 이상철 역(2010). 학교경영과 신뢰: 교장과 교사간 신뢰 증진 방안. Phyllis A. Gimbel. SOLUTIONS FOR PROMOTING PRINCIPAL-TEACHER TRUST. 서울: 원미사.

주요 소식

❖ 제156차 춘계학술대회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성료

교수, 대학원생, 연구자, 교육행정가 등 100여명 참여

박사학위 논문 발표자에게 기념패 수여도

'한국교육의 이슈와 현 정부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한국교육학회 주관 하에 개최된 2010 춘계학술대회(한국교육행정학회 제156차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지난 4월 24일(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 및 대학원생과 교육행정기관 및 연구 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 및 교육행정가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김혜숙 교수(연세대, 학술분과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총 4명의 발표자가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에는 박선형 교수(동국대)가 '교육행정학의 혼합방법연구 활성화를 위한 예비적 논의 검토'를, 엄준용 박사(KEDD)가 'DEA를 활용한 대학원의 효율성 분석'을, 박군달 박사(국민대)가 '중학생의 사회경제적배경이 특목고 진학희망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장훈 박사(한국교원대)가 '공립학교군별 전문학습공동체 형성 정도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 토론자로는 허병기 교수(한국교원대), 박종필 교수(전주교대), 송경오 교수(조선대), 박엘리사 교수(숭실대), 김희규 교수(신라대)가 참여하였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한 엄준용 박사, 박균달 박사, 장훈 박사에게 학회의 연구 분위기 진작에 기여한 공을 기념하여 학회가 제작한 기념패를 수여하였다.



〈사회를 맡은 김혜숙 학술위원장〉



〈허병기 교수, 박종필 교수, 박선형 교수(왼쪽부터)〉

❖ '미래지향적 학교발전모형 탐색' 주제로 제157차 학술대회 개최 예정
오는 6월 12일(토) 연세대학교(서울) 용재관 304호

한국교육행정학회 제157차 학술대회가 '미래지향적 학교발전모형 탐색'을 주제로 오는 6월 12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연세대학교에서 열린다. 미래를 준비하고 지향하는 학교의 다양한 발전 모형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서정화 홍익대 교수의 기조발표와 박종필 교수(전주교대) 등의 발표자가 4개의 하위 주제에 대해 발표를 하고, 그 후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사회 : 김재웅(서강대학교)]

13:30 - 14:00	등 록	
14:00 - 14:10	[개 회 식] 개 회 사	송광용(한국교육행정학회장)
14:10 - 14:40	[기 조 강 연] 미래지향적 학교발전모형 탐색	강연 : 서정화(홍익대)
14:40 - 15:20	[발표 1]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교육과정, 인사, 재정 등)	발표 : 박종필(전주교대)
15:20 - 16:00	[발표 2] 환경친화적 학교 시설	발표 : 이화룡(공주대)
16:00 - 16:20	휴 식	
16:20 - 17:00	[발표 3] 학교공동체로서의 학교	발표 : 김희규(신라대)
17:00 - 17:40	[발표 4] 학교경영 우수 사례	발표 : 서금택(공주대), 최준렬(공주대)
17:40 - 18:00	폐 회	

■ 학회 회원가입 활동 협조

* 교육행정학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교육행정 관련 전문가들이 학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입 대상 : 교육행정 관련 석사·박사 취득자 및 취득예정자, 초·중등학교의 교원,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의 교육행정업무 담당자, 교육행정 관련 기관의 교육전문가 등
- * 회원에게 주어지는 특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행정학연구지 년 간 4권 - 뉴스레터 년 간 4회
 - 학회 요람 1권 - 각종 학술대회 참여 가능
 - 교육행정학 연구지 논문 게재 가능 등
- * 가입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 홈페이지 가입 : www.kssea.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후 회비납부
(가입 회원께서는 회비납부 후 사무국으로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주소 및 연락처 정비

- *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으신 회원님께서서는 홈페이지 개인정보를 수정하신 이후에 학회 메일 (kssea1@hanmail.net)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 학회에서 안내해 드리는 각종 소식이나 메일이 도착하지 않는 회원님들께서는 학회 홈페이지 (www.kssea.or.kr)에 접속해서서 설정해 놓은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 메일 수신에 관한 안내

- * 대학/기관의 도메인을 사용하는 회원님께 학회의 단체 안내 메일이 수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학/기관 등은 단체메일을 수신 거부하더라도 개인에게 스팸처리 결과를 알리지 않습니다. 각 포털사이트에서 단체메일 수신이 가능 하오니, 변경을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kssea1@hanmail.net) 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비 납부 안내

- * 본 학회 회칙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2년 이상 학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회원자격을 상실토록 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회비 납부 현황은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연회비 안내

정회원 50,000원, 학생회원 2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회비납부: 079801-04-056987(국민은행), 예금주 : 송광용(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 사무국 주소 및 전화번호

- 주소 : (137-74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우면로 161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414호
- E-Mail : kssea1@hanmail.net
- 전화번호 : (02) 3475-2522
- 회 장 : 송광용(010-8974-9430, 02-3475-2200)
- 부회장 : 임연기(011-9870-2053)
- 사무국 : 정수현 사무국장(016-226-6356)
신철균 총무간사(017-201-3998)
김효진 편집간사(010-5120-0814)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 헌장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헌장은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1. 회원은 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교육행정학과 한국교육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3.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법률 및 학회 윤리규정,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학술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4.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5.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6.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회원은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8.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007. 4. 27

한국교육행정학회

